

경제파괴의 서막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무당의 세상

6가지 불치병 이야기 사마천 사기 <편작열전>

첫째: 교만하고 방자하여 내 병은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환자는 고칠 수 없다. (驕恣不論於理, 一不治也)

둘째: 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고 돈과 재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환자는 고칠 수 없다. (輕身重財, 二不治也)

셋째: 음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환자는 고칠 수 없다. (衣食不能適, 三不治也)

넷째: 음양의 평형이 깨져서 오장의 기가 안정되지 않는 환자는 고칠 수 없다. (陰陽并藏 氣不定, 四不治也)

다섯째: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도저히 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자는 고칠 수 없다. (形羸不能服藥, 五不治也)

여섯째: 무당의 말만 믿고 의사를 믿지 못하는 환자는 고칠 수 없다. (信巫不信醫, 六不治也)



인지부조화 세력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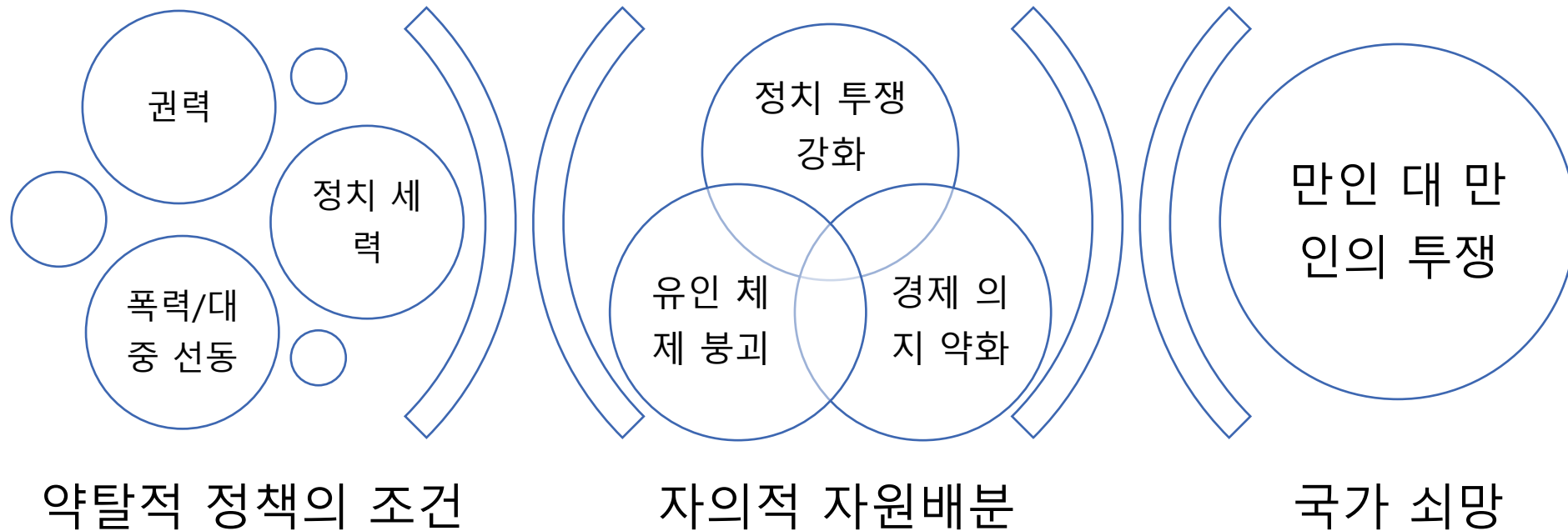
인지부조화란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 생각, 가치를 동시에 지닐 때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한 경험 등을 말한다.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
 - 보수와 진보의 갈등
 - 소통과 불통
 - 협치와 들러리
-
- 檢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표적수사 아냐" 재판장에 해명
 - [남정호의 시사각각]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출처: 중앙일보] => 소송
 - 檢,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실업자 127만명·실업률 4.5%...역대 최고
 - 역대최대 '슈퍼추경'에 나라살림적자·국가채무비율 사상최고
 - 부산시장, 서울시장, 충남지사 등

사회주의자들의 등장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1988년 4월 1일 백태웅, 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준비위를 만든 것에서 시작하여,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결성된 단체. 약칭은 사노맹이다.
 - 주요 이념은 반제국주의, 반파쇼와 민족해방이며 목적은 폭력, 소요 사태를 일으켜 노태우 정부를 타도한 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1991년 4월 29일 해산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확정되었다
- 김 의원이 다시 "예전에 사노맹 사회주의자였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약탈적 정책의 실패와 국가의 쇠망



Margaret Thatcher (1976), once argued, "Socialist governments . . . always run out of other people's money," and thus the way to prosperity is for the state to give "the people more choice to spend their own money in their own way."

차베스의 길?

국민주권 탈취

- 헌법, 국회와 행정부를 감찰할 직책 신설(public defender: 공수처)
- 판사 190명 처벌



보편적 복지

- 저소득층 보조금
- 무상의료
- 무상교육(대학)



경제 개입

- 생필품 가격통제
- 국유화
- 이중환율제
- 기업경영개입



파멸

- 부패 증가
- 수출 감소
- 생필품 부족
- 재정 파탄
- 민생 파괴
- 국경 탈출(240만)

불합리한 대증요법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그림 3.1: 고용량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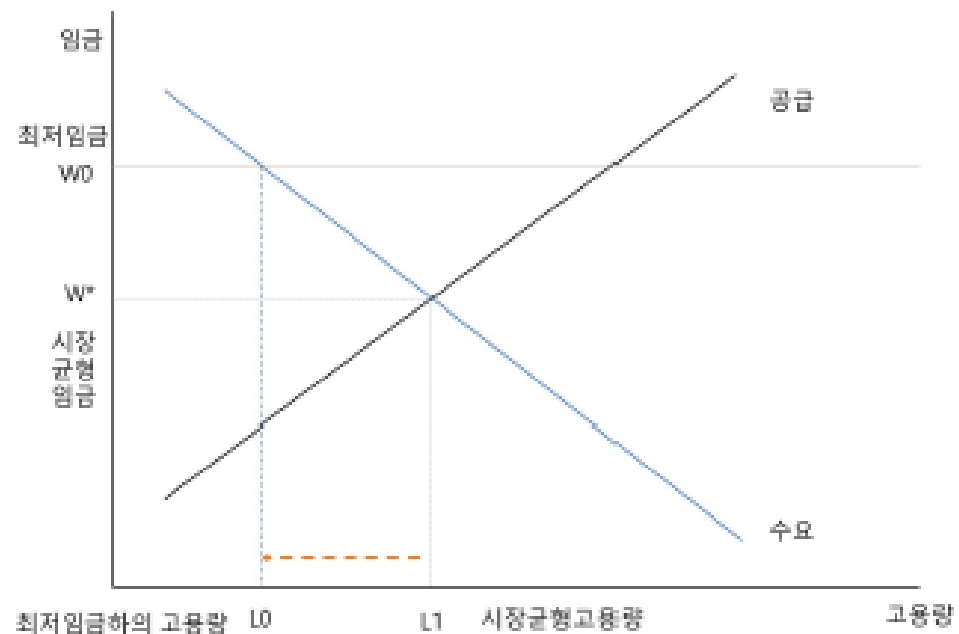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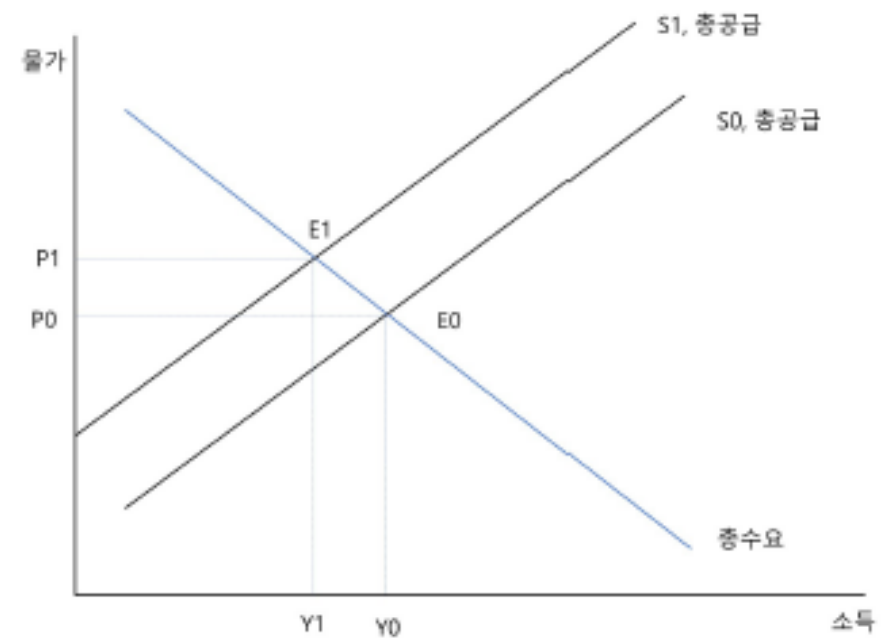


그림 3.6: 국민소득의 결정



2018년 1~12월 무슨 일이?

고용 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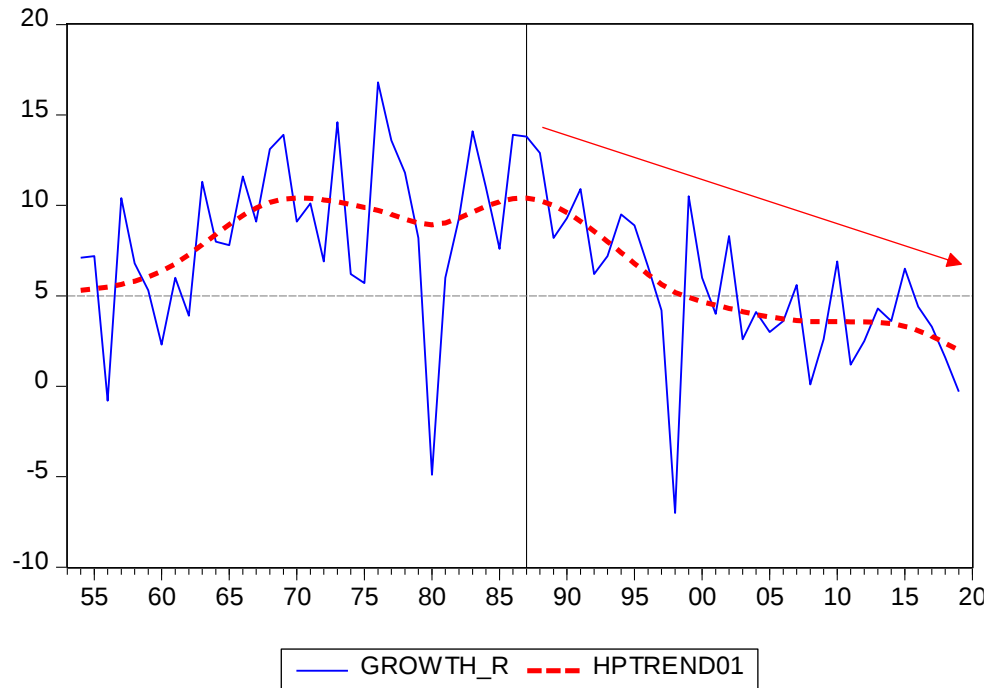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취업자 수	26,725천명	26,822천명
36시간 이상	21,930천명	21,209천명
비임금근로자	6,791천명	6,739천명
취업자 증감 (전년대비)	316천명	97천명
도소매업자 증감(전년대비)	38천명	-117천명
동립어업 취업 자 증감(전년대비)	6천명	62천명

소비 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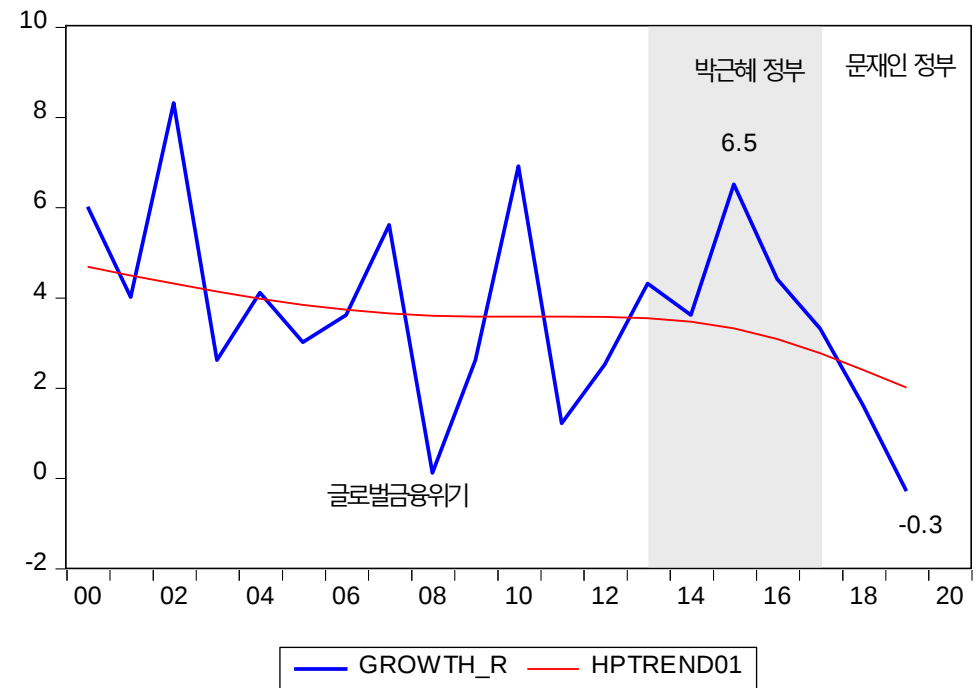
가구당 소비지출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천원)	구성비(%)	금액(천원)	구성비(%)	명목	실질
소 비 지 출	2,556.80	100	2,537.60	100	-0.8	-2.2
식료품. 비주류음료	360.3	14.1	366.7	14.4	1.8	-1
주 류. 담 배	34.8	1.4	35	1.4	0.6	0.4
의 류. 신 발	159	6.2	152.2	6	-4.3	-5.3
주거. 수도·광열	283	11.1	285.5	11.2	0.9	0.2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112	4.4	117.1	4.6	4.5	2.2
보 건	181.8	7.1	191.1	7.5	5.1	5.2
교 통	369.1	14.4	348.8	13.7	-5.5	-7.7
통 신	137.8	5.4	134.1	5.3	-2.7	-1.9
오 락 · 문 화	174.7	6.8	191.8	7.6	9.8	9.3
교 육	188.3	7.4	173.4	6.8	-7.9	-9.2
음 식 · 숙 박	354.2	13.9	349.7	13.8	-1.3	-4.2
기타 상품. 서비스	201.7	7.9	192.3	7.6	-4.7	-5.2
식료품. 비주류음료	701.3	27.4	702.8	27.7	0.2	-2.6

경제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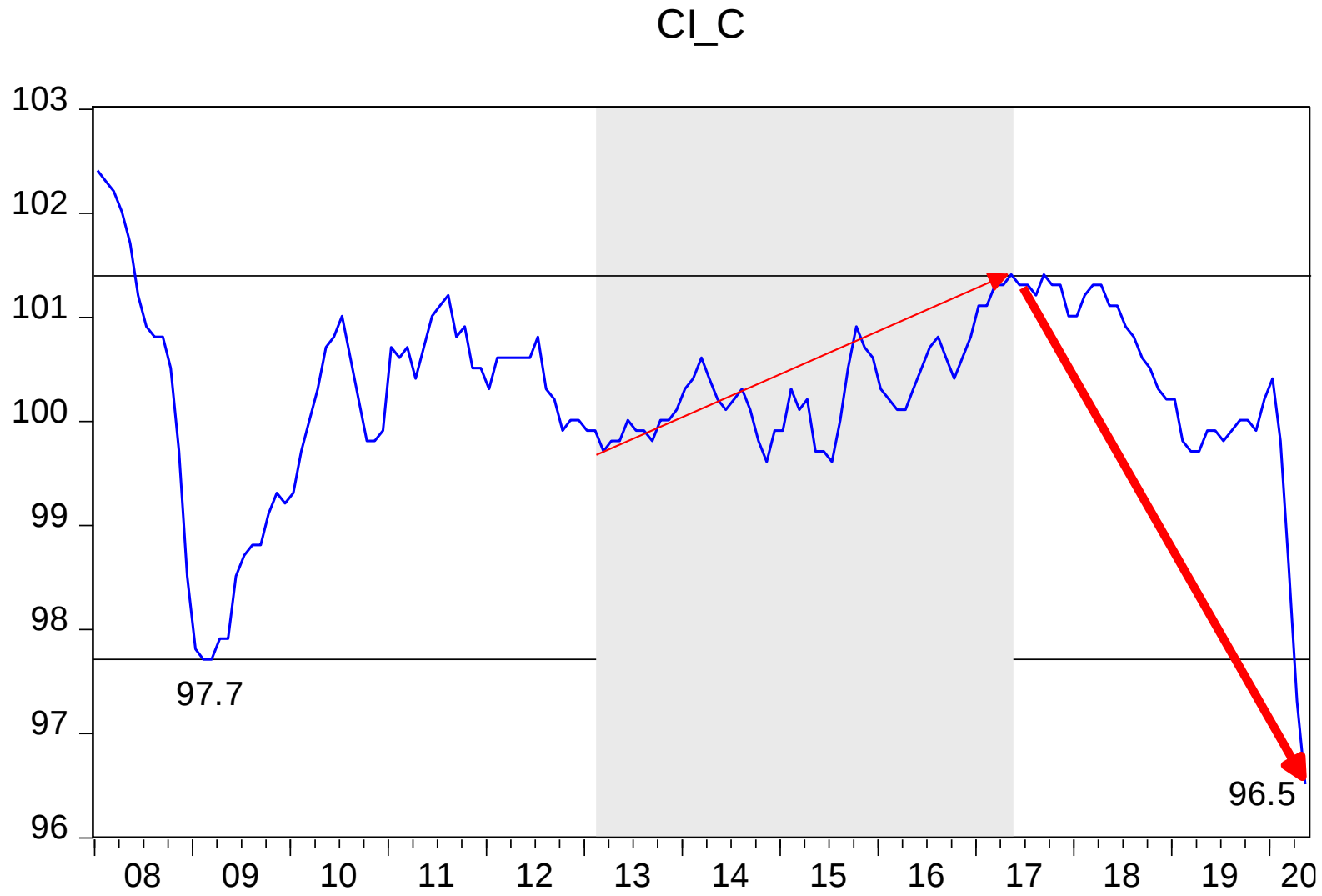
국내총소득의 흐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국내총소득 성장률 비교



정권별 경기종합지수로 판단한 경기 상황





위기 탈출 과제



자산시장 정상화

단독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 임종석과 평양 다녀왔다



머니투데이

로그인

≡ 뉴스 증권 정치 법률 TOM 칼럼 자동차 연예 이슈 MT리포트 | VIP **속보** 태릉골프장 개발 소식에...교통 지옥 vs

부동산 훈수두는 법무장관 추미애...野 "서울시장 노리나"

뉴스룸 | 최신기사

정부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법 개정안 다시 국회 제출

송고시간 | 2020-06-23 10:05

MBC 뉴스

홈 | 뉴스데스크 | 엠빅뉴스 | 14F | 정치 | 사회 | 국제 | 경제 | 과학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더

뉴스데스크

남궁욱

"일감 왜 빼앗나"...양대 노총 곳곳 '극한' 충돌

입력 2020-04-09 20:31 | 수정 2020-04-09 20:33

0 가 同 < 0



미디어오늘

청와대 만찬 불참 민주노총, 경향한겨레도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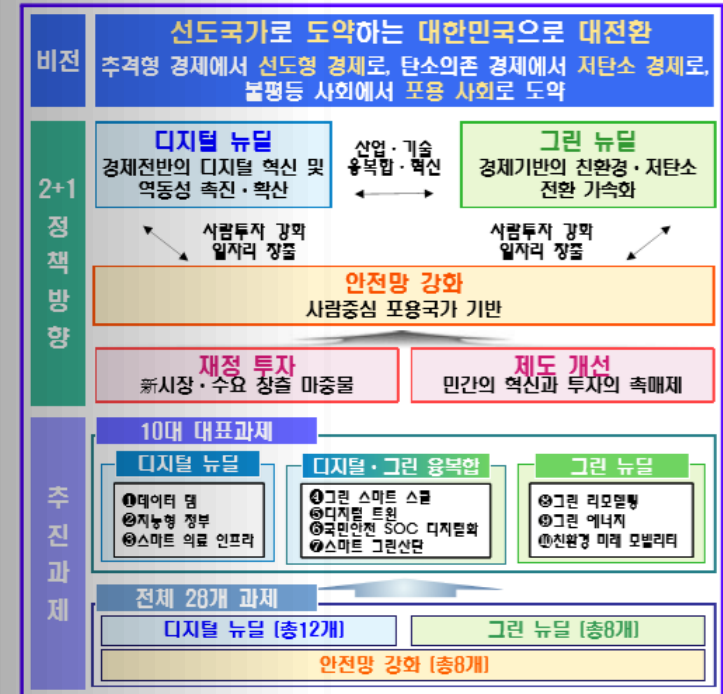
장슬기 기자 입력 2017.10.25. 09:15 댓글 14개

노동시장 정상화

성장동력 회복

II. 구조 및 추진전략

1. 한국판 뉴딜의 구조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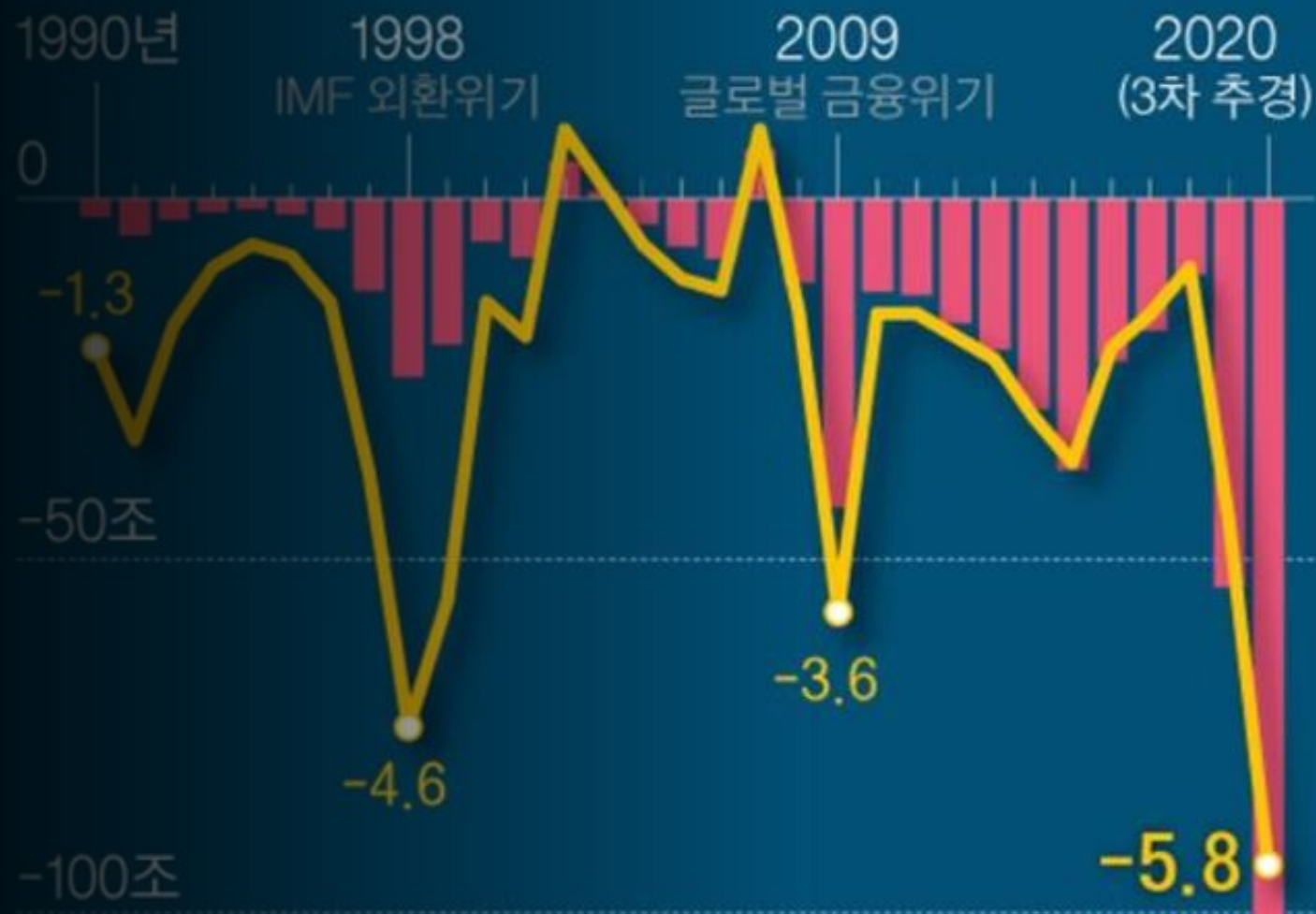
- D·N·A(Data·Network·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튼튼한 고용사회 인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재정건정성

※2020년 경상성장률 0.6% 가정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관리재정수지(원) ● GDP대비(%)



수많은 과제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